

“역사조형물, 도시 풍경에 스며 들어야죠”



유대인을 태운 열차가 출발했던 그루네발트역 17번 선로 조형물. © 백중욱

백중욱 미술생태연구소장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펴내

역사를 기억하는 도시 이야기는 광주민 중항쟁을 품고 있는 '광주'가 새겨들어야 할 주제다. 5·18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518m 탑'이 언급되는 도시라면 너무 창피하지 않은가.



미술기획자 백중욱 미술생태연구소장의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도시의 풍경에 스며든 10가지 기념 조형물 (반비 간)은 그래서 반가운 책이었다. 목포 출신으로 홍익대를 졸업하고 베를린예술대학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한 그는 지난 2002년부터 기념조형물에 관심을 가져왔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동서 분단, 그리고 재통일을 이뤄낸 독일 베를린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기념조형물'에 다름 아니었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유대인 아픔·반전 담은 베를린 조형물 10가지 소개
광고판·정류장·보도블럭... 일상의 요소처럼 녹아 있어
엄숙·직설적이고 획일적인 고정된 상징 매달리기 보다 더 많은 생각거리 던져 줄 예술 결합된 표현 방식 필요

“개인 작업을 하던 중 관심이 조형물, 공공미술, 건축 등으로 확장됐어요. 수없이 방문하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곤했죠. 도서관과 서점에도 시간 날 때 마다 둘러 자료를 모았어요. 책으로 내면 어떻게 생각한 게 2002년이니 거의 16년을 품고 있었네요. (웃음) 책을 준비하며 2017년 베를린을 찾아 사진을 찍고 현장을 다시 찾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책에 실린 조형물은 홀로코스트 기념조형물이나 베를린 장벽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처럼 알려진 곳도 있지만 유대인을 실은, 죽음을 수용소행 (行) 화물차가 출발한 그루네발트역의 17번 선로 등 낯선 곳도 소개돼 있다. 그가 생각하는 베를린의 기념조형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조형물들은 역사적인 기억을 품은 장소에 밀착된 느낌을 줘요. 사람들이 늘 지나가는 광장 지하, 광고판, 버스정류장, 기차승강장, 보도블럭 등 도시의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처럼 만들어졌고 공원처럼 조성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머무를 수 있어요. 일상적인 풍경과 단절되지 않는, '도시의 피부'에 스며드는 형식입니다. 우리처럼 높은 제단을 쌓거나 성역화하는 대신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도시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있죠.”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곳은 베벨 광장

‘도서관’과 17번 선로였다. 또 내부가 텅 빈 건물, 케테 콜비치의 피에타상, 동근 장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어우러진 ‘노이에 바헤’ (신위병소)의 모습도 감동적이었다. 나치의 야만적인 ‘분서’ 현장에 설치된 ‘도서관’은 지극히 단순하다. 지상에는 사각형 투명 유리창만이 있고, 그곳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지하 공간엔 텅 빈 책장만이 존재한다. 17번 선로엔 ‘194년 6월13일/유대인 746명/베를린/알려지지 않은 곳’처럼 ‘열차의 출발’ 기록을 담은 187개의 철판이 설치돼 있다.

“17번 선로는 정말 많이 찾았던 장소네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곤 했던 명상의 장소예요. 구구절절 설명이 없어도 강렬하고 몽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곳의 조형물들은 풍경을 건드리지 않아요. 조각 작품도 표현주의 회화처럼 추상적 형태죠.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듯해



케테 콜비치의 피에타상이 놓인 노이에바헤(신위병소). © 백중욱

요. 베벨 광장의 도서관 역시 ‘비워둠’을 택해 더 많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나라 조형물은 위로 높이 솟아 있거나 제단을 높게 만드는 등의 고정 관념이 있다.

“고정관념을 깨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역사를 기억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기념조형물은 직설적이고 선동적인 데서 한발 더 나가 ‘작품’이어야 그 감동이 오래갑니다. 감동이 없는 조형물은 그저 ‘표시’이거나 의례적인 기념물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술관에서 감동적인 작품과 교감을 갖는 것처럼 도심의 조형물도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독일 역시 조형물을 제작하는 데 숙련된 논쟁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피터 아이젠만이 참여한 홀로코스트조형물이 대표적으로 완성되는 데 7년의 세월이 걸렸다.

“사람들이 독일은 제도가 뛰어나서도 그러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독일도 우리처럼 공모 과정을 거치는 건 똑같아요. 대신 열린 구조를 통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보완하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좀 더 나은

걸 만들어가죠. 이런 모습은 권위적인 도시와 개방적인 도시를 가르는 사회의 자화상이자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5·18 등과 관련한 조형물들이 많은 우리 지역에도 변화가 오면 좋겠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조형물들은 획일적인 게 많아 좀 어색한 하죠. 광주가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술은 한번 균열이 생기면 그 영향이 점점 퍼져 나가니까요. 자료와 영상 등 역사를 품고 있는 기초 자료와 더불어 예술이 결합할 때 표현 방식도 다채로워지고 그 울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상징에 매달리다 보면 다양성이 없어지고 본질이 사라져 버리기도 해요. 설명적인 표현 방식 대신 직설적이지 않은 게 오히려 강한 충격을 줘요.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합니다.”

지난해 열린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로 참여, ‘생존의 기술: 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전을 기획했던 그는 ‘잠에 취한 미술사’를 펴내기도 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미술강좌는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넷과 아트콘서트 ‘겨울연가’

31일 송필용 작가 초대

11번째 김넷과 아트콘서트 ‘겨울연가’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김넷과 2층에서 열린다.

문화심터가 된 옛 병원건물 ‘김넷과’는 지난해 2월부터 클래식앙상블, 가극 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먼저 황해연 (사)어썸오케스트라&과 이어 단장의 사회로 문을 여는 1부는 ‘작가 이야기’로 꾸며진다. 이달의 초대 작가는 서양화가 송필용 작가다. 20년 넘게 자신이 느낀 물의 기운을 다양한 형태로 변조해 보여주는 송 작가의 ‘흐르는 물처럼-강과 연어와 나무’를 감상하며 그의 작품 세계를 살펴본다.

‘겨울연가’를 주제로 이어지는 2부는 유명 오페라·뮤지컬에 나온 노래와 재즈



송필용 작가

음악으로 채워진다. 테너 김성진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성당의 시대’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변홍과 클라리네티스트 박효인이 영화 ‘러브 스토리’ 수록곡을 연주한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제규환은 ‘라 트라비아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을 무대에 올리고 보컬리스트 재즈 맥클루어와 기타리스트 에릭 레트너는 ‘스탠 바이 유 어 맨’ 등으로 듀오 무대를 선보인다. 관람료 1만원(음료 제공). 문의 062-229-3355. /백희준 기자 bhj@

“문화예술 나눔의 씨앗 싹 틔워주세요”

광주문화재단, 메세나 운동 캐릭터 ‘보듬박씨’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이 광주 문화메세나운동을 상징하는 캐릭터 ‘보듬박씨’ (사진)를 선보였다.

동글한 모양의 박씨는 기부와 나눔을 상징한다. 보듬박씨는 선행을 통해 얻은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전래동화 흥부농부전에서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받은 ‘박씨’를 통해 금은보화를 얻었던 이야기가 토대가 됐다. 선행(기부)을 하면 박(행복한 이익)을 얻는다는 상징적 의미다.

문화보듬10000운동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기부 메뉴에서 참여 가능하며 월 1만원 정기 기부를 통해 문화나무가 자라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부 회원에게는 영수증 및 보듬



박씨 캐릭터 아트상품(2019년 다이어리, 보듬박씨 배지, 전자파차단스티커), 광주문화예술정보지 문화마실 정기구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광주문화재단 문화메세나의 일환인 문화보듬10000운동은 시민, 관공서 및 공공기관 임·직원, 예술인 등 1203명이 함께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내달 7일부터 정기 강좌

전남대 인근 카페 노블서

광주시민인문학 64기 정기 강좌가 내달 7일부터 3월 2일까지 전남대 정문 인문학 카페 노블서에서 열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강좌에는 인문학, 소설창작, 글쓰기, 영화 등 다양한 영역이 다뤄진다.

월요일은 명혜영 교수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이갈리아의 딸들’을 주제로 시민을 만나고 화요일에는 소설가 이진

교수가 ‘소설 이론에서 실기까지’를 강의한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각각 명혜영 교수와 신우진 씨가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 ‘묵독회 심인심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금요일은 글쓰기 교실로 ‘자유주제 리포트 & 콜로키움’이 진행된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영화인문학 시간으로 ‘영화로 읽는 삶, 여성, 가족, 개인’이 이어진다. 참가비 없음.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메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책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대한민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